

# 原油價格 바스켓制度

최근 國際原油價格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 經濟通貨인 달러화가치의 급격한변동으로 인한 유가 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OPEC 中 일부국가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油價바스켓제도의 도입을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석유전문가인 Ramaswamy氏가 이 제도에 대해 Asian Wall Street Journal紙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이다.<編輯者 註>

**최근** 수년간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은 그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계획이나 예측의 여지를 크게 감소시켜 왔다는 점이다. 美國의 거대한 財政 및 貿易赤字와 환율변동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의해 야기된 세계경제에 대한 커다란 충격을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原油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1986年 달러貨가 급속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었을 때 油價체제의 붕괴를 예측하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OPEC議長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조차도 이러한 油價체제의 붕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정도였다.

1985年 12월 파리 헤럴드 트리뷴紙와의 인터뷰에서 야마니石油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高油價體制지속을 위해 자국의 산유량을 감소시키면서까지 OPEC 전체 산유량을 일정수준이하로 유지시키는 등 그때까지 담당하여 온 OPEC 內 生産調整者(Swing Producer)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產油國間 油價戰爭의 시작을 암시하였다.

原油가 갖고 있는 불리한 속성중의 하나는 그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전혀 관계없는 요인에 의해 때로는 폭등하고 때로는 폭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러한 변화가 언제 재연될지 예측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달러貨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한 油價변화로 거래당사국들이 받는 고통(또는 喜悅)은 배가된다는 점이다. 1979年 오일쇼크이후 계속된 달러貨強勢현상으로 美國경제는 똑같은 原油수입국이지만



바스켓가격은 달러만으로 표시되는 原油價格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한편 그로 말미암아 卍貨나 마르크貨에 대해서도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바스켓가격은 어느 통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단순하여 시장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한다.



弱勢通貨國인 日本이나 西獨경제에 비해 충격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5년말이후의 油價하락시에 美國의 이익은 달러價値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해 強勢通貨國인 日本이나 西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 ◇쇼크에 취약한 油價

原油가격은 市場外的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충격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原油시장은 회오리바람과도 같은 예측 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선진공업국들에 의해 구상된 비상대책들도 이러한 市場外的인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供給上的 충격으로부터 原油市場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장외적인 충격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通貨의 취약성때문에 단순히 原油의 需給狀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原油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市場外的인 요인이 장래에 또 다른 오일쇼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통화변동에 의한 왜곡요인을 더 이상 허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 ◇油價바스켓의 구성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고 원유의 供給과 配分을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 原油가격을 달러로만 표시하지 않고 달러, 엔, 마르크의 3個 주요통화로 구성된 油價바스켓을 구상하여 보자.

그러면 먼저 바스켓을 구성하는 各通貨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실제로 바스켓가격은 달러만으로 표시되는 原油가격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한편 그로 말미암아 엔貨나 마르크貨에 대해서도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바스켓가격은 어느통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단순하여 시장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바스켓 제도만이 환율변동에 의한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원유의 수급에 의한 시장상황만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油價바스켓은 美國, 日本, 西獨등 3國이 각각수입하는 原油純輸入額(정상달러 기준)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달러貨, 엔貨, 마르크貨로 구성되어야 한다.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油價가 대체로 안정세를 시험하였던 1984년을 예로 하여 바스켓가격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1984년 美國의 原油純輸入額은 美國이 540億 달러, 日本이 450億 달러, 서독이 220億달러(각국 모두 經常價格)를 기록하였으며, 20大原油수입국중 이들 3개국의 원유수입비중은 60%에 달하였다. 이들3개국의 原油수입비율은 45:38:17이기 때문에 1984년도 原油바스켓價格은 달러貨 45%, 엔貨 38%, 마르크貨 17%로 구성할 수 있다.

1984年度에 中東原油의 대표유종인 사우디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이 배럴당 28달러였으므로 1984년초의 각국 통화의 교환비율을 사용하여 上記 구성비율에 따라 바스켓價格을 계산해보면, 배럴당 12.60달러, 2,490엔(달러로 환산시 10.64달러), 13.10마르크(달러로 환산시 4.76달러)의 습이 되며 연중 原油가격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84년말

의 각국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바스켓가격은 배럴당 12.60달러, 2,617엔(달러로 환산시 10.64달러), 14.60마르크(달러 환산시 4.76달러)의 슘이 된다. 이 경우 바스켓原油 가격은 통화변동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마치 金本位制度 또는 固定換率制度下에서와 같이 原油市場의 수급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만일 原油시장의 수급상황변동으로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이러한 변동은 바스켓가격의 구성화에 따라 조정된다. 위에 든 보기에서 원유 1배럴의 경 상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경우 28달러이다.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10%의 상승(2.80달러)이 요구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上昇分 2.80달러를 각국간 原油수입비율, 즉 45:38:17로 배분하면 원유바스켓가격의 各通貨別 구성은 달러貨 1.26달러, 엔화는 261엔(달러로 환산시 1.06달러), 마르크貨는 1.47마르크(同 0.48달러)가 된다. 따라서 10% 上昇한 바스켓가격은 84년말의 12.60달러, 2,617엔, 14.60마르크의 슘에서 13.86달러, 2,878엔, 16.07마르크의 슘이 된다.

경상가격기준으로 달러화, 엔화 또는 마르크貨로 각각 환산하여도 똑같이 10% 上昇하는 폭이 될 것이다.

바스켓가격의 산정방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가격결정이 요구되는 市場에서도 사용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制度가 일단 시행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른 매일 매일의 조정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유선물(oil futures) 그리고 인스턴트뱅킹의 시대이다. 통화시장 그 자체가 위험감소방안을 고안하여 적응해 왔던 것처럼 원유시장 또한 통화변동에 중립적인 價格算定方式(Currency-Neutral Pricing)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바스켓 제도하에서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한쪽도 환율변동에 따른 상대방의 희생은 댓가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더우기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도 환율변동에 따른 차별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스켓제도의 有用性은 특히

市場外的要因에 의해 價格폭등 또는 폭락이 나타날 경우 분명해 질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美FRB 新任議長이 지적하였듯이 지금과 같은 취약성은 국제간 거래가 달러 標示價格으로 계속되는 한 달러환율변동과 함께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만일 바스켓가격제도가 원유거래에 도입된다면 이는 그러한 취약성을 제거하는 첫단계 조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스켓제도는 原油市場뿐만 아니라 통화시장에도 상당한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原油거래에 있어 바스켓제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개념은 똑같은 특징을 갖는 다른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바스켓制度導入의 利點

OPEC 및 OECD 회원국들은 원유거래에 있어 바스켓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란의 故 샤王은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1973년 OPEC를 주도하여 油價를 끌어 올리려고 하였을 때 原油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주요통화의 바스켓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만일 지난해 바스켓제도가 도입되었다면 美國 石油產業地帶에서의 경기후퇴도 예방되었을 것이며 OPEC產油國도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통화의 급격한 변동은 지난 10여년간 貿易과 기타국제 거래를 크게 저해하여 왔다. 바스켓제도는 이러한 통화변동이 原油시장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이다.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통화의 변동 때문에 한때 고통을 받아 왔다.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인 것이다. □

이웃마다 믿는 마음      거리마다 밝은 마음